

## 한국어 파생 형용사의 의미<sup>\* \*\*</sup>

송 정 근<sup>\*\*\*</sup>

우리말은 형용사가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형용사가 풍부한 언어이다. 단일어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파생 형용사 역시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낸다. 특히 파생 형용사 가운데에 ‘가치’, ‘인간 기질’, ‘물리적 속성’ 등의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다는 특징도 확인되는데, 이는 ‘-스럽-, -하-’ 등 생산적인 형용사 파생 접사가 주로 이들 의미 유형의 파생 형용사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어의 구성 성분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길다-길쭉하다, 붉다-불그레하다’와 같이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형용사는 어기와 동일한 의미 유형을 갖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품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가운데 ‘-스럽-, -롭-, -쩍-’ 등의 접사에 의해 파생된 형용사는 특정한 몇 개의 의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반면, ‘-하-’에 의해 파생된 파생 형용사는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이들 접사들이 어기에 대해 갖는 제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명사나 어근으로부터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들은 ‘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는데, ‘어느 슥다’와 같이 구체 명사를 어기로 한 파생 형용사는 명사의 속성 중 하나의 속성만 부각하여 나타내 대상이 어기 자체는 아니라는 부가적 의미를 갖는다. ‘궁상맞다, 능글맞다’와 같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파생 형용사는 접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어기와 결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파생 형용사를 형성하기 위한 형태론적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 11915).

\*\* 이 논문은 제36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절차의 의미 기능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것은 ‘정도성’ 표현 기능인데, 이는 접사나 어근형성요소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고, 자음이나 모음 교체, 중첩 등의 형태론적 절차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핵심어: 파생 형용사, 의미 유형, 자음과 모음 교체, 중첩, 파생

## 1. 서론

단어의 의미 문제는 주관적인 직관을 통제할 객관적 연구 방법론의 부족이나 단어의 다의적 용법, 미묘한 어감 차이 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별 단어의 의미 기술을 넘어서 일련의 단어 부류에 대한 의미 연구는 대량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개별 단어의 의미와 함께 해당 단어 부류에 대한 범주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간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품사론적 접근이나 통사론적 특징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으나 형용사나 파생 형용사의 의미만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파생 형용사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는 파생 형용사 자체의 의미와 함께 의미에 관여하는 구성 성분을 분석해야 하고, 단어형성 과정에서 부여되는 의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일어 형용사의 의미 연구보다 고려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말 파생 형용사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가. 우리말 파생 형용사는 어떤 의미 유형을 갖는가?

나.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어기의 의미 유형은 어떤 관련을 맺는가?

다. 파생 형용사의 의미에 단어형성 절차는 어떤 의미 기능을 하는가?

(1가)는 우리말 파생 형용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 의미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 문제는 형용사 의미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 분류적 성격을 갖는데, 기존 연구에서도 형용사의 의미에 기반한 형용사의 하위 유형 분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검토가 필요한 주제라 하겠다.<sup>1)</sup> 그러나 그 간 우리말 형용사 유형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제시되었고, 개별 연구의 장단점을 따져 하나로 아우르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제시된 형용사 의미 유형을 기준으로 우리말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1나)는 우리말 파생 형용사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파생 형용사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파생 형용사의 윤곽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사에 따라 파생 형용사를 분류해 보고 파생 형용사를 구성하는 어기의 의미가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sup>2)</sup>

(1다)는 파생 형용사의 단어형성에 관여하는 접사, 어근형성요소<sup>3)</sup> 등의 형태소 결합, 자음이나 모음 교체, 중첩 등이 파생 형용사의 의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관련된 논의이다. 여기서는 개별 접사와 단어형성 절차의 특수한 의미 기능보다는 파생 형용사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이고 핵심 의미 기능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명

1) 형용사 유형 분류와 관련된 기존 연구사는 유현경(1998), 김정남(2005), 송정근(2007) 등의 학위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2) 여기서 ‘어기’는 어간과 어근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어근’은 학교 문법 용어가 아니라 이익섭(1975)식 어근의 개념 즉 ‘단어의 중심부이면서 비자립적이고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단위’의 의미로 쓴다.

3) 어근형성요소는 ‘끔찍하다, 깊숙하다’에서 분석되는 ‘-음직-, -숙-’과 같이 어간에 결합하여 어근을 형성하는 성분을 말한다(송정근 2007, 2009-). 또한 ‘끔찍, 깊숙’과 같이 어간과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된 단위는 복합어근으로 명명한다.

사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의 의미와 파생 형용사의 ‘정도성’ 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형성 절차를 주로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1)에서 제시된 주제는 각각 장을 달리하여, 2장, 3장, 4장에서 순차적으로 다룬다.

## 2.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파생 형용사

언어 유형론적으로 특정 의미를 지시하는 단어는 특정한 품사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 총각, 소녀’ 등의 인간을 지시하는 단어 나 ‘팔, 다리, 눈’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다른 언어에서도 주로 명사로 나타난다.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언어 보편적으로 동사로 주로 나타나는 것도 언어 보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명사나 동사와 달리, 언어에 따라 형용사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의 종류는 다양한데 Dixon(2004)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용사의 규모에 따라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 유형을 언어 유형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 (2) 형용사의 규모와 의미 유형

	형용사의 규모	의미 유형
가	소규모, 대규모 형용사	Dimension, Age, Value, Colour
나	중규모, 대규모 형용사	Physical property, Human propensity, speed
다	대규모 형용사	Difficulty, Similarity, Qualification, Quantification, Position, Cardinal number

(2)는 형용사의 규모에 따라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은 수의 형용사를 갖는 언어에서도 ‘크기, 나이, 가치, 색’ 등은 형용사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형용사 규모가 큰 언어일수록 다양한 의미를 형용사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가)에서 제시한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어 형용사는 이미 Sohn (2004: 225)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2가)에 해당하는 파생 형용사의 예와 (2나, 다)에 해당하는 단일어 형용사와 파생 형용사들을 추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sup>4)</sup>

(3) 의미 유형별 한국어 형용사의 양상

	영어	한국어(단일어)	한국어(파생어)
크기(dimension)	big, small, long, tall, wide, deep	크다, 작다, 길다, 넓다, 깊다	큼직하다, 널따랗다, 거대하다
나이(age)	new, young, old	젊다, 늙다, 어리다	연소하다, 연유하다, 연로하다
가치(value)	good, bad, lovely, atrocious, perfect, proper / odd, strange, important	좋다, 싸다, 예쁘다, 무섭다, 낫다	다행스럽다, 만족스럽다, 명예롭다, 평화롭다, 단조롭다, 중요하다, 이상하다
색(colour)	black, white, red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노르다	거무스름하다, 볼그스름하다, 희끗희끗하다
물리적 속성(physical property)	hard, heavy, wet, rough, strong, clean, sour / sick, tired	무겁다, 가볍다, 거칠다, 부드럽다, 시다, 아프다	동긋하다, 거칠하다, 솟쓰레하다, 시끄럽다, 딱딱하다, 피곤하다

- 4) 청각을 나타내는 ‘시끄럽다’는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거의 없는 접사 ‘-압/엍-’이 분석되어 이 단어를 공시적으로 파생어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끄럽다’ 외에도 ‘-압/엍-’은 ‘아깝다(<앗깝-, 앓기-+-압-), 즐겁다(<즐겁-, 즐기-+-엍-), 부끄럽다(<붓그럽-, 붓그리-+-엍-)’의 통시적인 분석에서 확인된다. 이와 유사하게 ‘뵈다(<뵈-, 뵈-+-붕-), 그럽다(<그립-, 그리-+-붕-), 두렵다(<두립-, 두리-+-붕-), 놀랍다(<놀랄-, 놀라-+-붕-)’ 등의 ‘-뵈(붕)-’ 역시 공시적인 분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리다-그럽다, 놀라다-놀랍다’와 같이 어근에 해당하는 동사 어간이 공시적으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뵈(붕)-’의 공시적인 분석 여부를 결정하기 더욱 어렵다. ‘-붕-’과 같은 계열의 접미사로 ‘-뵈(브-)’도 있는데, ‘고프다(<골프-, 꿔-+-브-), 아프다(<알프-, 앓-+-브-), 슬프다(슬프-, 슬-+-브-), 기쁘다(깃쁘-, 깃-+-브-)’ 등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동사가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파생어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의 분류에서는 어근이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접사의 생산성이 확인되지 않는 예들은 단일어로 분류하였다.

인간 기질(Human propensity)	jealous, happy, kind, clever, cruel, proud, eager	기쁘다, 슬프다, 반갑다, 지겹다, 부럽다	호뭇하다, 어른스럽다, 바보스럽다, 자애롭다, 슬기롭다, 까다롭다
속도(speed)	fast, quick, slow	빠르다, 느리다, 잣다, 더디다	신속하다,
난도(difficulty)	easy, difficult, tough, hard, simple	쉽다, 어렵다, 서툴다	난해하다,
유사성(similarity)	like, unlike, similar, different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질(qualification)	definite, true, possible, common, appropriate	바르다, 옳다, 그르다	가능하다
양(quantification)	all, many, some, few, only, enough	많다, 적다, 드물다	풍족하다, 부족하다
위치(position)	high, far, right, northern	높다, 낮다, 멀다, 알다	야트막하다, 높직하다
기수(cardinal number)	one, two, three...	X	X

(3)에서 형용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 유형으로 제시된 ‘크기, 나이, 가치, 색’의 네 유형 가운데 ‘크기(dimension)’는 1차원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길다, 짧다’, 2차원적인 ‘넓다, 좁다’, 3차원적인 ‘크다, 작다’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파생 형용사로 ‘널따랗다’처럼 형용사 어간에 접사 ‘-다랗-’이 결합한 파생어나 ‘큼직하다, 깊숙하다’ 등과 같이 형용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 결합 후 ‘-하-’가 결합한 파생어, ‘거대하다’와 같이 한자어에 접사 ‘-하-’가 결합한 파생어 등을 들 수 있다.

‘나이(age)’ 의미 유형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살아온 햇수라는 의미 뿐 아니라 ‘늙다’와 같이 무정물의 연한(年限)을 뜻하는 단어까지 포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말에서 ‘젊다’와 달리, ‘늙다’는 동사적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형용사로 보기 어려운데, 영어의 ‘young, old’가 ‘나이’ 의미 유형의 전형적인 예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의미가 언어에 따라 다른 품사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늙

다'와 관련된 파생 형용사로 '늡숙하다, 늡수그레하다, 늡직하다' 등이 존재한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이들 단어는 순수한 나이와 관련된 의미 보다는 인물에 대한 가치 평가적 의미로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어리다'에서 파생된 형용사 '어리숙하다'와 유사한 의미 유형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 유형의 파생 형용사로는 한자어 어근에 '-하-'가 결합한 '연소(年少)하다, 연로(年老)하다' 등을 들 수 있다.

'가치(value)'는 'good, bad, lovely, odd, necessary, important' 등의 해당 단어를 고려할 때,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두 포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Sohn(2004: 225)에서는 우리말의 예로 '좋다, 나쁘다, 싸다, 비싸다, 귀엽다, 무섭다, 곱다, 예쁘다, 밋다, 낫다, 아깝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파생 형용사로 '이상하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가치'의 의미 유형은 '인간 기질(human propensity)'의 의미 유형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인간 기질'로 제시된 단어들로는 'happy, ashamed'와 같은 일시적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와 'clever, cruel' 등과 같은 인간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등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인간이 갖는 항구적인 속성에 대한 가치 판단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와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령 '인간 기질'로 제시된 영어 예에 대응되는 우리말 파생 형용사 '현명하다, 잔인하다'를 고려할 때, Sohn(2004)에서 '가치'의 의미 유형으로 제시한 예들 가운데 '(성격이) 좋다'는 '인간 기질'로 볼 수 있고, '기쁘다, 슬프다'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Sohn(2004)에서 '가치'로 분류한 '(뱀이)무섭다'는 동일한 의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와 항구적인 속성에 가까운 단어의 구분을 위해 김세중(1989)의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다. 김세중(1989)에서는 '심리형용사'와 '속성형용사'를 구분하기 위해 기준으로 해당 형용사가 '-기로 유명하다/소문이 자자하다'에 쓰일 수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는데,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형용사'만이 이 구성의 선행 성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칠수는 기

뿌기로 유명하다.’가 불가능한 반면, ‘철수는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다.’은 가능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시적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인간 기질’과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가치’는 일차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치’에 속한 형용사들 중 인간의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다시 구분해야 (3)의 ‘인간 기질’ 의미 유형을 만족할 수 있다. 이 구분은 ‘-기로 유명하다/소문이 자자하다’에 선행하는 대상(theme)의 논항으로 특정 인물이 상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듯 싶다. 즉 ‘철수는 어른스럽기로 유명하다’가 가능하다면 ‘어른스럽다’는 ‘인간 기질’의 의미 유형을 갖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치’의 의미 유형과 항구적 속성에 해당하는 ‘인간 기질’의 의미 유형에 속한 파생 형용사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가. 다행스럽다, 만족스럽다, 걱정스럽다; 미안스럽다, 갑작스럽다,  
새삼스럽다

나. 위태롭다, 명예롭다, 평화롭다; 애처롭다, 단조롭다

(5) 가. 어른스럽다, 바보스럽다, 준결스럽다; 인자스럽다, 천진스럽다,  
상냥스럽다

나. 자애롭다, 지혜롭다, 의롭다, 슬기롭다; 까다롭다

(4가, 5가)는 접미사 ‘-스럽-’이 쓰인 파생어이고, (4나, 5나)는 ‘-롭-’이 쓰인 파생어이다. (4, 5)는 모두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의미를 가지지만, ‘-기로 유명하다/소문이 자자하다’의 대상 논항이 특정 인간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는 ‘가치’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파생 형용사, (5)는 ‘인간 기질’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파생 형용사로 볼 수 있다. 즉 (4)는 ‘\*철수는 다행스럽기로 유명하다’에서와 같이 특정 인간을 대상의 논항으로 상정이 불가능한 반면, (5)는 ‘철수는 자애롭기로 유명하다’와 같은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어 형용사 파생 접사 중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스럽-’으로 파생된 형용사 중 상당수는 ‘가치’나 ‘인간 기질’의 의미 유형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가치’나 ‘인간 기질’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우리말 파생 형용사가 풍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치’나 ‘인간 기질’과 함께 ‘물리적 속성’에 해당하는 파생 형용사도 우리말에서는 많이 발견된다. ‘물리적 속성’에는 ‘크기, 색, 위치’와 같은 별도의 의미 유형으로 제시된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감각과 관련된 형용사가 모두 포괄된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물리적 대상을 인식하므로 물리적 속성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감각의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6) 가. 둥긋하다, 구뭇하다, 둥그스름하다

나. 거긋하다, 질긋하다, 부드레하다

다. 씹쓰레하다, 시큼하다, 달착지근하다

라.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조용하다

(6가)는 시각, (6나)는 촉각, (6다)는 미각, (6라)는 청각과 관련된 파생 형용사의 예들인데, 접사 ‘-하-’가 주로 분석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물리적 속성’에는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sick, tired’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에서도 파생 형용사로 ‘피곤하다, 아프다’와 같은 단어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의 의미 유형 가운데, ‘속도, 난도, 유사성, 질, 양’의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신속하다, 난해하다, 비슷하다, 가능하다, 풍족하다’ 등과 같은 파생 형용사들도 우리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한자어 어근에 접사 ‘-하-’가 결합한 파생 형용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의미 유형은 대규모 형용사를 갖는 언어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우리말에서 파생 형용사 역시 단일어 형용사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파생 형용사와 구성 성분의 의미 관계

파생어는 어기와 접사로 구성된다. 단어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구성 성분의 의미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합성성의 원리에 따른다면, 파생어의 의미도 어기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 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어 파생 형용사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그 구성성분인 어기의 의미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다음 표를 살펴보자.

(7) 구성 성분을 고려한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 분류

의미 유형	접미 파생어 I		접미 파생어 II	접두 파생어
	고유어+하다	한자어+하다		
크기(dimension)	큼직하다	거대하다	널따랗다, 좁다랗다	드넓다
나이(age)	(늡수그레하다, 어리숙하다)	연소하다, 연유하다		
가치(value)		이상하다, 중요하다, 가난하다	다행스럽다, 만족스럽다, 평화롭다, 단조롭다, 미심쩍다, 정답다	
색(colour)	거무스름하다, 불그스름하다, 푸릇하다, 희끗희끗하다		(가랗다, 하얗다, 파랗다, 빨갳다, 노랗다)	시꺼멓다, 싹누렇다, 새하얗다, 새빨갳다
물리적 속성(physical property)	동긋하다, 거칫하다, 썩썩하다, 딱딱하다	(신체 상태) 피곤하다		실미지근하다
인간 기질(human propensity)	흐뭇하다, 개운하다, 갑갑하다	격노하다, 상쾌하다, 우울하다,	바보스럽다, 외롭다, 자애롭다, 슬기롭다, 궁상맞다, 능글맞다, 넉살맞다	

속도(speed)		신속하다,		
난도(difficulty)		난해하다,		
유사성(similarity)	비슷하다, 비스듬하다	유사하다		엇비슷하다
질(qualification)		가능하다		
양(quantification)		풍족하다, 부족하다		
위치(position)	야트막하다, 높직하다, 깊숙하다	태고(太高)하다	높다랗다	

(7)은 접사 ‘-하-’가 분석되는 파생 형용사(접미 파생어I)와 ‘-다랗-, -스럽-, -롭-, -맞-’ 등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 형용사(접미 파생어II), 접두사에 의한 파생 형용사(접두 파생어)의 예들을 의미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하-’ 접사 파생 형용사의 경우, 어기의 어종에 따라 어기가 고유어인 경우와 한자어인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말 파생 형용사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7)에서는 ‘-하-’ 파생 형용사가 의미 유형적 측면에서나 수효의 측면에서 우리말 파생 형용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생 형용사가 다양한 의미 유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말에는 풍부한 파생 형용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앞서 확인하였는데,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파생 형용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파생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사의 종류는 그리 다양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공시적인 생산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접사 ‘-답1-, -롭-, -다랗-’이나 동사로부터 접사화한 ‘-맞-, -지-’ 등도 결합하는 어기의 수가 제한적이며, ‘-압/엮-, -왕/엮-’ 등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사로 분석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우리말 파생 형용사는 ‘-하-, -스럽-’ 등 소수의 생산적인 접사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리적 속성’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파생어들도 매우 풍부한데, 이들은 형용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와 접사가 결합되어 파생된 단어가 많다는 점도 우리말 파생 형용사의 구성상 특징이라 할 만하다. 이 경우에도 접사 ‘-하-’가 관여된다는 점에서 파생 형용사의

형성에 있어 접사 ‘-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7)에서 어기의 의미 유형과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을 비교 분석해 보면, 우선 접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존에 존재하는 단일어 형용사 어간으로부터 파생된 형용사는 기존의 형용사와 동일한 의미 유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8) 가. 길다-길쭉하다, 넓다-넓따랗다

나. 예쁘다-예쁘장하다, 곱다-곱살하다

다. 검다-거무스름하다, 붉다-불그레하다

라. 얇다-얇트막하다, 높다-높직하다, 깊다-깊다랗다

(8)은 모두 기존에 존재하는 형용사 어간에 접사를 결합하여 품사의 변화 없이, 동일한 의미 유형의 새로운 파생어를 형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령 ‘길다-길쭉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면서 ‘크기’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단어인 것이다. 다만 단어 구조의 차원에서 접사 ‘-하-’의 경우에는 형용사 어간에 어근형성요소가 결합된 복합어근에 결합된 반면, ‘-직-, -다랗-’ 등은 형용사 어간에 직접 결합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른 품사에서 형용사로 파생된 단어들의 경우, 접사 ‘-하-’ 파생 형용사를 제외하면 한두 개의 정해진 의미 유형의 파생 형용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가. 궁상맞다, 능청맞다, 방정맞다, 능글맞다, 지질맞다

나. 멧쩍다, 의심쩍다, 열쩍다, 객쩍다

다. 멧지다, 건방지다, 끈덕지다, 야무지다, 양칼지다; 값지다, 기름지다

다. 세모지다, 네모지다, 언덕지다, 비탈지다

(9)는 주로 명사 혹은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한 단어들이다.

접사 ‘-맞-, -쩍-, -지-’가 형성하는 파생어들은 기분이나 성격을 의미하는 ‘인간 기질’이나 사물에 대한 ‘가치’의 의미 유형을 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지-’는 (9다’)과 같이 ‘물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앞 장의 (4),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롭-, -롭-’ 역시 명사나 어근과 결합하여 ‘가치’나 ‘인간 기질’의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하는 파생 형용사 형성에서 특정 접사들은 일정한 의미 유형의 파생 형용사를 형성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성은 접사의 일반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어미와 달리 접사는 어기에 대한 제약이 있기 마련이고, 동일한 접사를 통해 형성된 단어는 품사나 의미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 (9)에서 살펴본 형용사로 부터 파생된 파생 형용사나 명사나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파생 형용사 모두 이러한 일반론적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 하겠다.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의 경우에도 접두사가 어기의 품사를 바꿀 수 없고 특정한 의미만을 부가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어기의 의미 유형과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은 동일하다.

(10) 가. 넓다-드넓다, 높다-드높다, 세다-드세다

나. 구수하다-엇구수하다, 비슷하다-엇비슷하다

이에 비해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하-’ 파생 형용사는 매우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7)의 한자어 어근과 ‘-하-’ 파생어들을 살펴보면, ‘거대하다, 연소하다, 안전하다, 신속하다, 비슷하다, 가능하다, 풍족하다’ 등 ‘크기’부터 ‘양’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파생 형용사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는 [+상태]의 의미 특성을 갖는 명사나 어근과 결합하면 형용사를, [+동작]의 의미 특성을 갖는 명사나 어근과 결합하면 동사를 파생하는데, 명사나 어근의 의미 특성이 ‘-하-’ 파생

형용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즉 ‘크기’를 나타내는 ‘거대하다’는 한자어 어근 ‘거대’에 이미 ‘크기’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거대하다’에는 ‘거대’의 의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하-’는 형태론적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제약이 ‘-스롭-, -롭-’ 등의 다른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 비해 약하여 명사, 어근, 어근의 중첩형(노릇노릇, 널찍널찍 등) 등 다양한 문법적 지위의 단위가 올 수 있고, 의미론적 차원에서 결합하는 여기에 대한 제약 역시 강하지 않다. 이로 인해 ‘-하-’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의 한자어 명사나 어근의 의미가 그대로 파생 형용사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7)에서 검토한 ‘길찍하다, 푸르스름하다’ 류의 단어에도 확인된다. ‘-하-’는 형용사 어간과는 직접 결합할 수 없는데, ‘길찍, 푸르스름’과 같이 형용사 어간에서 형성된 복합어근과 결합이 가능하다. 이때 복합어근의 의미가 그대로 반영된 ‘-하-’ 파생 형용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여기와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파생 형용사는 여기와 동일한 의미 유형을 갖고, 다른 품사로부터 파생된 파생 형용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스롭-, -롭-, -찍-’ 등과 같이 결합하는 여기에 대한 문법적, 의미론적 제약이 강하고, 특정한 의미 유형의 파생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사에 의해 형성된 파생 형용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약이 약하고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내는 ‘-하-’ 파생 형용사이다. ‘-스롭-, -롭-, -찍-’이나 ‘-하-’ 모두 여기를 형용사로 만들어 준다는 접사로서의 문법적 지배력은 동일하지만, 파생된 의미 유형의 측면에서 전자는 특정한 의미 유형의 파생 형용사를 만든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 유형의 파생 형용사를 형성하는 ‘-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4. 단어형성 절차와 파생 형용사의 의미

언자들은 파생이나 합성과 같은 단어형성 절차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새로운 단어의 생성과 그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와는 다른 문법적, 의미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기존의 단어와 동질적인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파생 형용사들의 형성과 관련된 형태론적 절차들이 파생 형용사의 의미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sup>5)</sup>

우선 파생 형용사의 형성에서 매우 생산적인 ‘-스럽-’의 의미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1) 가. 어른스럽다, 바보스럽다, 호걸스럽다

나. 고집스럽다, 고민스럽다, 창피스럽다

다. 가증스럽다, 인자스럽다, 상냥스럽다, 시원스럽다

라. 먹음직스럽다, 예쁘장스럽다

(11가, 나)는 ‘-스럽-’이 명사와 결합된 예들이고, (11다, 라)는 어근과 결합된 예들이다. ‘-스럽-’이 명사와 결합된 예도 구체명사 특히 인성명사와 결합되는 경우(11가)와 추상명사와 결합된 경우(11나)로 구분되고, 어근과 결합된 예 역시 단일어근과 결합된 경우(11다)와 복합어근과 결합된 경우(11라)로 나눌 수 있다. ‘-스럽-’과 결합하는 어근은 (11나, 다, 라)과 같이 주로 추상적인 상태나 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스럽-’의 의미에 대해서는 심재기(1982: 381)에서 ‘그 선행소의 특정적 속성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음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한 의미 기능

5) 형태론적 절차에 따른 의미 표현 양상은 주로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여기서 다룬 내용 중 어근형성용소, 자음이나 모음 교체 중첩 등의 의미는 송정근(2009ㄱ)에서 다룬 것들이다.

을 삼는다.’는 설명과 함께 [+미흡성]의 의미 자질로 설명했고, 김창섭(1996: 177)에서는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에 주목하여 [+접근성]의 의미 자질을 부여하였다. 송철의(1992: 203)에서는 ‘N(여기)는 아니지만 N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 속성 중의 일부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6)</sup>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스럽-’은 ‘여기의 속성이 있음’의 의미와 ‘해당 대상이 여기 자체는 아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의미는 구체명사와 결합하는 ‘-스럽-’의 의미에서만 확인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집스럽다, 가증스럽다, 고민스럽다’ 등의 추상명사나 어근과 ‘-스럽-’이 결합한 파생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스럽-’이 갖는 ‘해당 대상이 여기 자체는 아님’의 의미는 명사와 형용사의 품사 범주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고 판단된다. Wierzbicka(1980: 468)에서는 명사와 형용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론적 차이를 명사는 다양한 속성의 갖는 반면, 형용사는 하나의 속성을 나타냄을 지적한 바 있다. Givón(1984)에서 설명한 명사의 이른바 ‘클러스터-효과(cluster-effect)’ 역시 명사가 형용사와 달리 다양한 속성의 집합임을 전제한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어른-어른스럽다’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른’은 나이, 신체 조건, 성격 등 다양한 속성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어른스럽다’는 ‘어른’이 갖는 하나의 속성만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

6) 고영근·구본관(2008: 225)에서는 ‘-스럽-’의 의미를 ‘-답2-’와 비교하여 ‘어른스럽다’가 ‘어른이 아니면서 어른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을 ‘어른답다’는 ‘(어린이면서)어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답2-’는 ‘-답1-’과 달리 명사구에 결합하고, 선행 어기가 자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접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영근·구본관(2008: 225)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스럽-’과 ‘-답2-’의 비교는 동등한 문법 단위에 대한 비교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대상이 여기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 특성은 이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7) 가령 ‘말(horse)’은 전형적인 색, 모양, 크기, 재질 등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동물을 지칭하는데, 이 중 하나의 속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속성들의 묶음만으로도 ‘말’에 ‘말다움(horseness)’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Givón(1984)에서의 ‘클러스터 효과’이다.



다. 이때 부각된 하나의 속성 이외의 다른 속성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2) 가. 이제 행동하는 것이 제법 어른스럽구나.

나. 정장에 넥타이까지 하니 제법 어른스럽구나.

(12가)에서 ‘어른스럽다’는 그 대상의 ‘행동 양식’이 어른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 ‘나이, 신체 조건’ 등의 ‘어른’의 다른 속성 등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즉 ‘행동 양식’만 ‘어른의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12나)에서는 ‘외향 모습’의 속성만이 어른과 같다는 의미로 쓰여, 대상이 ‘나이, 행동 양식’ 등의 어른이 갖는 다른 속성은 갖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스럽-’의 의미 가운데 ‘해당 대상이 어기 자체는 아님’의 의미는 ‘-스럽-’ 자체의 의미라기 보다는 ‘구체 명사+-스럽-’이 명사와 달리 하나의 속성만 드러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인한 의미로 볼 수 있다.<sup>8)</sup>

이런 관점에서 ‘-스럽-’ 자체는 ‘어기의 속성이 있음’의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롭-, -하-’의 의미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 가. 자유롭다-자유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 수고롭다-수고스럽다

나. 하늘색이 얼마나 {신비하나, 신비로우나, 신비스러우나!}

내일 시험을 본다면서 {한가하기도, 한가롭기도, 한가스럽기도} 하구나!

웃고 계시니까 아주 {인자하게, 인자롭게, 인자스럽게} 보여요.

8) 형용사 파생 접사 가운데 구체 명사와 결합하는 예는 많지 않은데, 다른 예로 ‘언덕지다, 비탈지다, 기름지다, 세모지다’의 ‘-지-’를 들 수 있다. 이들 파생 형용사 역시 “저 언덕은 언덕지다, \*비탈이 비탈지다, \*기름이 기름지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덕, 비탈, 기름, 세모’ 등이 갖는 속성 중 하나만 부각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13가)는 송철의(1992: 204-205), (13나)는 김창섭(1996: 178)에서 가지고 온 예이다. ‘-스럽-’은 18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13가)와 같이 ‘-롭-’의 의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송철의 1992: 205). 이들은 (13나)에서와 같이 미묘한 함축적 의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를 객관화하여 기술하기는 어려울 듯싶다.<sup>9)</sup> 오히려 동일한 어기에 결합할 수 있다는 점, 서로 의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동일한 의미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롭-’와 관련된 형용사 파생 접사로는 ‘-답1-’과 ‘-되-’를 들 수 있다.

(14) 가. 위태롭다, 영화롭다, 이롭다, 자유롭다; 보배롭다, 슬기롭다; 감미롭다, 다채롭다

나. 꽃답다, 정답다, 참답다

다. 복되다, 진실되다, 혼란되다, 망령되다, 참되다.

(14)는 ‘-롭-, -답1-, -되-’가 쓰인 파생 형용사들로 이들 접사가 주로 추상적인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 명사 혹은 어근과 주로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롭-, -답1-, -되-’는 중세국어에서 이 형태 관계에 있던 ‘-롭-, -들-, -드븄-’에 소급되는데,<sup>10)</sup> ‘-롭-’이 모음

9) 김창섭(1996)에서 ‘-하-’는 어근의 의미를 그대로 투영할 뿐이며, ‘-롭-’은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 ‘-스럽-’은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러한 기술이 ‘-하-’, ‘-롭-’, ‘-스럽-’의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어기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식의 기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화자의 사태를 보는 시각에 따라 지시 대상이 되는 어떤 사태가 비록 어기의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기가 뜻하는 상태의 하나로 인정되면 ‘-하-’가 쓰일 수 있고, 지시 대상의 어떤 사태가 어기의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롭-’을, 기준에 접근했다고 판단되면 ‘-스럽-’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롭-’은 단순한 주관적 판단을 암시하고 ‘-스럽-’은 감각적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X(어기)이다’와 같은 심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상의 본질보다는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하였다.

으로 끝나 어기와 결합하는 반면, ‘-답1-, -되-’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하는 분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중세어 단계에서는 이형태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였을 것이고, 공시적인 차원에서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어휘화한 단어가 있으나 이전 시기의 의미로부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롭-’의 의미와 같이 ‘-답-, -되-’ 역시 ‘어기의 속성이 있음’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기의 속성이 있음’의 의미는 명사나 어근을 형용사로 파생하기 위한 접사의 최소한의 의미로 생각된다. 우리는 앞서 ‘-하-’가 어기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였으나 추상 명사나 상태의 의미를 갖는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하-’ 역시 ‘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명사로부터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 가운데 ‘-맞-, -쩍-’으로 형성된 파생형용사들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 (15) 가. 궁상맞다, 능글맞다, 방정맞다, 익살맞다  
나. 괴이쩍다, 미심쩍다, 의심쩍다, 멧쩍다

(15)의 예들이 갖는 부정적 의미는 ‘-맞-, -쩍-’ 자체의 의미인지, 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어기와 결합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sup>11)</sup> 그런데 ‘익살맞다’에서와 같이 부정적 의미가 거의 없는 단어를 고려할 때, 부정적 어기와 결합으로 인해 파생된 단어 역시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맞-, -쩍-’

10) ‘-롭-, -락-, -들-, -드롭-’의 통시적인 변화는 구본관(2007)을 참고할 수 있다.

11) 송철의(1992: 218-219)에서 제시한 ‘심술궂다, 엄살궂다, 암상궂다, 애궂다, 짓궂다’에서 분석되는 ‘궂다’는 ‘궂다’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단어 전체의 부정적 의미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 ‘궂다’는 『표준사전』에서 접사로 인정되지 않아 여기서는 제외한다.

역시 부정적 의미의 어기와 주로 결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어기의 속성이 있음’ 정도의 의미를 갖는 다른 형용사 파생 접사와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명사나 어근으로부터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들은 주로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 어기와 결합하여 ‘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체 명사를 형용사로 파생하는 경우, 파생 형용사는 명사의 다양한 속성 중 하나의 속성만 나타내므로 다른 속성들이 배제되는 부가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부정적 의미를 갖는 파생 형용사는 접사가 아닌 어기의 부정적 의미로 인한 것이고 접사는 역시 ‘어기의 속성이 있음’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의미는 명사나 어근을 형용사화하기 위한 의미이므로 형용사를 다시 형용사로 파생하는 접사는 이러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sup>12)</sup>

- (16) 가. 기다랗다, 굵다랗다, 넓다랗다, 두껍다랗다, 굵다랗다, 깊다랗다  
나. 새까맣다, 새하얗다, 새빨갳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싹누렇다,  
시뻘겋다  
다. 드넓다, 드높다, 드뭇다, 드세다, 드바쁘다

(16)은 형용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다랗-’, 접두사 ‘새-, 샛-, 시-, 싹-’과 ‘드-’의 예를 보인 것이다. ‘길다-기다랗다, 굵다-굵다랗다, 까맣다-새까맣다, 넓다-드넓다’ 등의 의미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랗-, 새-, 드-’ 등의 접사는 어기 속성의 강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으

12) ‘발갳다,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가랗다, 둥그랗다, 말갳다’ 등에서 분석되는 ‘-얗-’도 형용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로 볼 수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접사 ‘-얗-’에 결합하는 어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얗-’이 어기의 강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송철의 1992: 225-226).

로 분석된다. ‘엇비슷하다, 실미지근하다’에서 분석되는 접두사 ‘엇-, 실-’ 등이 약한 ‘정도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용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두사는 ‘정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도성’의 의미는 형용사 파생 접사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7) 가. 길다-길찍하다-기르스름하다, 길다-길쭉하다-길쭉스름하다, 넓다-넓죽하다

나. 거뭇하다-거무스레하다, 시름하다-시크무레하다

(17)은 ‘물리적 속성’, ‘색’, ‘물리적 속성’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이른바 감각 형용사들로 ‘-찍-, -스름-, -쭉-, -스-, -레-’ 등 다양한 어근 형성요소가 분석되는데, 이들 역시 ‘정도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가령 ‘길찍하다’는 ‘길이가 꽤 긴 듯하다(《표준사전》)’로 정의되는데, ‘꽤’로 표현되는 정도성은 ‘-찍-’에 의해 부여된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다.

파생 형용사에서 해당 속성의 ‘정도성’ 표현이 접사나 어근형성요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정도성’은 다음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 교체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18) 가. 둥그스름하다-뚱그스름하다, 서늘하다-썩늘하다, 질기다-찹기다

나. 까맣다-꺼멩다, 노랗다-누렇다, 말그스름하다-멀그스름하다, 환하다-훤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말에서는 (18)과 같은 자음이나 모음 교체에 의한 의미 표현이 가능한데, (18가)와 같이 평음보다는 경음이, (18나)와 같이 양성 모음보다는 음성 모음이 더 강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모음 교체에서는 양성 모음이 긍정적인 평가라면 음성 모음은 부정적인 평가적 의미가 표현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노랗다-누렇다, 기름하다-가름하다, 짹짹하다-찹찹하다’에서 음

성모음이 쓰인 단어들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정도성’은 다음과 같은 중첩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19) 가. 등글등글하다, 거칠거칠하다, 길쭉길쭉하다, 넓적넓적하다

나. 크디크다, 짜디짜다, 검디검다, 짹짹하다, 떨떨하다, 씹씹하다

(19)는 ‘물리적 속성’, ‘크기’ 등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파생 형용사들로 형용사 어간이나 어근의 중첩이 확인되는 예이다. 이들은 중첩을 통해 해당 감각의 ‘정도성’이 강함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19가)에서는 ‘정도성’과 함께, 대상 감각의 분포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의미 특성도 확인되어 흥미롭다. 가령 ‘거칠다-거칠거칠하다, 길쭉하다-길쭉길쭉하다’ 등을 비교해 보면 거칠거나 길쭉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품사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접사나 어근형성요소의 결합은 주로 ‘정도성’ 표현과 관련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의미 기능은 자음이나 모음 교체, 중첩과 같은 형태론적 절차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말에는 동일한 의미 유형에 속하지만 다양한 정도성을 표현하는 파생 형용사가 매우 풍부하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말 파생 형용사의 의미 유형을 분류해 보고, 파생 형용사의 의미를 형성하는 구성 성분의 의미와 형태론적 절차의 의미 기능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은 형용사나 파생 형용사가 다양한 의미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형용사와 파생 형용사가 풍부

한 언어이다. 특히 ‘가치’, ‘인간 기질’, ‘물리적 속성’ 등의 의미 유형에 속한 파생 형용사가 많다는 특징도 확인되는데, 이는 ‘-스럽-, -하-’ 등 생산적 형용사 파생 접사가 주로 이들 의미 유형의 파생 형용사를 많이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단어의 구성 성분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길다-길찍하다, 붉다-불그레하다’와 같이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형용사는 어기와 동일한 의미 유형을 갖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품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가운데 ‘-스럽-, -롭-, -쩍-’ 등의 접사에 의해 파생된 형용사는 특정한 몇 개의 의미 유형을 갖는 반면, ‘-하-’에 의해 파생된 파생 형용사는 다양한 의미 유형을 갖는다. 이는 이들 접사들이 어기에 대해 갖는 제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3. 명사나 어근으로부터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들은 ‘어기의 속성이 있음’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는데, ‘어른스럽다’와 같이 구체 명사를 어기로 한 파생 형용사는 명사의 속성 중 하나의 속성만 부각하여 나타내 대상이 어기 자체는 아니라는 부가적 의미를 갖고, ‘궁상맞다, 능글맞다’와 같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파생 형용사는 접사가 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어기와만 결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4. 파생 형용사를 형성하기 위한 형태론적 절차의 의미 기능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것은 ‘정도성’ 표현 기능인데, 이는 접사, 어근형성요소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고, 자음이나 모음 교체, 중첩 등의 형태론적 절차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본고는 논의 과정에서 의미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의 설정에 있어 엄밀성이 부족하고, 개별 접사나 단어형성 절차의 의미 기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런 미진한 점은 형용사에

대한 언어 유형론적 연구나 의미 분석에 대한 객관적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2007), 접미사 {들}의 이형태에 대한 통시적 고찰, 《우리말 연구》 21, 우리말학회, 1-43.
- 김세중(1989),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어학연구》 25-1, 한국언어학회, 151-165.
- 김정남(2001), 국어 형용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171-199.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창섭(1985),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9-176.
- 김홍수(1993),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연구》, 탑출판사.
- 송정근(2007),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정근(2009-1), 감각표현의 형태론적 절차와 의미 기능, 《정신문화연구》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109-132.
- 송정근(2009-2), 고유어 복합어근 범주 설정에 대하여, 《어문연구》 1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45-167.
- 송정근(2010), 한국어 형용사 범주 인식의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75, 한국언어학회, 167-190.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가지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56-165.
- 최현배(1937/1984), 《우리말본》, 정음사.
- Bhat, D. N. S.(1994), *The Adjective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ixon, R. M. W.(1977),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0.
- Dixon, R. M. W.(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R. M. W. Dixon & Alexandra Y. Aikhenvald (eds.), *Adjective Classes: A Cross-*

-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 Alexandra Y. Aikhenvald (eds.)(2004), *Adjectival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vón, T.(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ohn, Ho-min(2004), The Adjective Class in Korean, In R. M. W. Dixon & Alexandra Y. Aikhenvald (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erzbicka, A.(1980), *The case for surface case*, Ann Arbor: Karoma.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 042-629-8333  
E-mail: topheavy@hnu.kr  
투고 일자: 2017. 10. 31.  
심사 일자: 2017. 11. 23.  
게재 확정 일자: 2017. 12. 08.

## On the Meaning of Korean Derived Adjective

[Song, Jung-Keun]

한국어 파생 형용사의 의미 [송정근]

Korean is a language with a large adjective class in typological views in that the semantic content of Korean adjectives ranges over all the semantic types proposed by Dixon. Korean has abundant derived adjective as well as underived. In Korean, productive suffixes like ‘-silep-’, ‘-ha-’ make a derived word classified as ‘value’, ‘human propensity’, ‘physical property’ type. In comparison between the meaning of base and derived word, derived adjective like ‘*kilccik-hata*’ and base word ‘*kilta*’ have same semantic type. Some adjectives derived from other word class by ‘-sulep-’, ‘-lop-’, ‘-ccek-’ can have specific few semantic type. but other adjectives derived by ‘-ha-’ have various kind of semantic types, which is due to the difference of restriction of suffixes. Adjective-derivational suffixes attached to noun or root share the similar meaning ‘characterized by’. The negative meaning of derived adjectives like ‘*kungsang-macta*’ is came from base ‘*kungsang*’ not from suffix ‘-mac-’. It means suffix ‘-mac-’ do not have negative meaning. The most common meaning shared by all morphological processes namely derivation, reduplication, sound symbolism(consonant change and vowel change) is ‘graduality’.

Key words: derived adjective, semantic type, consonant change, vowel change, reduplication, derivation